

“친환경차 보급 기반 마련 힘 모아야”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취임 후 대외활동 첫 행보 현대차 전주공장 방문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호(號)가 닷을 올리고 합찬 향해를 시작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윤방섭 회장이 22일 상공회의소 임직원 전체 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회에서 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자리와 기업이 사라지는 등 우리 역사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상공인들의 고충에 더 귀 기울이고 기업인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업종간 소통과 융합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제조·유통·건설·서비스 등 전산업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발전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방섭 회장은 대외활동의 첫 행보로 전북경제의 주축인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서 윤 회장은 “전북경제의 심장인 현대차의 상용차 생산량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상용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전주상공회의소는 윤방섭 회장이 22일 상공회의소 임직원 전체 조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 환자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근로자 감염과 지역사회로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대차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윤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현대차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윤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현대차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윤상 기자

축산 냄새, 실시간 자가측정 가능

축사 내·외부에 있는 암모니아·황화수소 농도 온·습도 동시 측정... 컴퓨터 등서 수시로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축산 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냄새 측정기를 정보기술(IT)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축산 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후각이 냄새에 순응하거나 피로를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 대기 속 축산 냄새 물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냄새 강도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냄새 측정기는 축사 내·외부에 있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농도와 온·습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축산 냄새 측정 결과는 농장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축사 내부에 설치되는 냄새 측정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어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등 하위징 재질을 사용해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한, 축사 내부는 분진, 수분 등이 많아 냄새 측정이 어

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공기를 펌프 및 포집관을 통해 냄새 측정기 안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축산 냄새 물질 측정 주기는 실시간 또는 1시간 등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냄새 측정기를 활용하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축사 내 냄새 저감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농장 작업자의 건강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축산 냄새 측정기와 관련된 기술은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이 완료돼 오는 5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동호 축산환경과장은 “농가에서 냄새 측정기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냄새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냄새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복합악취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인 지원 강화 팔 걷어붙였다 | 실험, 5대 소상공인 직능단체와 협약 체결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로 전세계 금융기관 최초 로마 교황청에서 축복장을 받은 실험중앙회(회장 김운식, 이하 실험)가 이번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실험의 7대 포용금융은 김운식 실험중앙회장 취임 이후 경제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로, 실험은 이를 통해 금융에 사함을 더한 따뜻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실험은 2019년부터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믿음 아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중 소상공인 어부비플랜을 추진해왔다.

최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타격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실험은 지난 17일 5대 소상공인 직능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타격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실험은 지난 17일 5대 소상공인 직능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제과협회(회장 윤종기)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봉승) ▲한국국의광고협회중앙회(회장 최영균) ▲한국플로리스트협회(이사장 전현우)가 참여했다.

앞으로 실험은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을 비롯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실험의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와 소상공인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로 모색 등 각 직능 단체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 및

상생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운식 실험중앙회장은 “협약을 맺은 5대 업체들은 서민 창업 시 선호되는 분야들로 코로나19로 경제 질박에 내몰린 지역 자영업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직능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민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어부비 정신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험은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실험 본연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 어부비’의 가치를 담은 7대 포용 금융프로젝트를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어부비플랜”을 통해 전국 5,034명(2020년 12월말 기준)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저금리 대출제공, 외부전문가 연계 찾아가는 자문서비스 등 총 133,639건의 소상공인별 맞춤 경영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제 위기 및 수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1천만원까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2,616명에게 약 27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144개 실험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동참하여 실험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513개 업체에게 약 10억원의 임차료를 인하해준 바 있다.

아울러, 실험은 ▲고리채사채에서 서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815해방대결’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어부비 효(孝) 에티켓’ ▲출신을 장려하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등을 출시하여, 지속적으로 금융 소외계층의 눈높이에 맞춰 서민금융을 견인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논두렁 태우기, 해충 방제효과 거의 없어

소각 안한 농경지에서 발생·피해량 차이 적어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들의 밀도만 크게 감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논두렁 태우기가 월동 해충방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1월부터 충남, 전북, 경북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논, 밭 두렁에서 월동하는 병해충의 종류와 밀도를 조사해 논두렁 태우기 효과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친환경 재배 논, 논두렁이나 관행 농업지역 모두에서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80~97%)의 월동 밀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해충류(5~7%) 밀도는 극히 낮았다. 기타 절지동물류(2~3%)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논두렁의 태운 후에는 논과 논두렁 내 익충의 밀도가 크게 감소했고, 소각 이후 3주가 지난 때까지 밀도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논두렁 태우기가 농작물 생육기 해충 발생량과 피해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월 하순 모

내기 직후부터 10월 중하순 수확기까지 주요 해충 6종(벼멸구, 애벌레, 흰등발구, 흑등나방, 딱노린재, 벼물바구미)의 발생량과 피해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각한 농경지와 소각하지 않은 농경지에서의 해충 발생량과 피해량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논두렁 소각 효과를 밝히기 위해 친환경 농업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딱노린재의 월동 성충을 채집한 뒤 3, 5, 10cm 깊이에 각각 묻고 지푸라기를 덮어 소각했다. 그 결과, 월동 중인 해충이 잠들어 있는 땅 속 온도 변화가 극히 적어 열기로 타 죽은 딱노린재도 거의 없었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더 많이 죽게 한다”며 “오히려 산발,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월대보름 전후 논두렁 태우기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 권익위와 토지관련 국민불편 해소 앞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전현희)와 함께 이동신문고로 토지관련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LX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와 함께 호남지역 3곳을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의 부동산과 지적(地籍)제도에 관한 각종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2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도서·벽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과 건의 사항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제도로 LX는 권익위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지역별 정해진 장소에서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LX는 이동신문고 상담관으로 지적관련 학식과 현장 측량 경험이 풍부한 상담의 민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LX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종합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연중 운영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1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에게는 영농도우미를,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

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며, 연간 10일 이내 이용 가능하다. 영농도우미의 임금은 국고 70%, 자부담 30%다. 다만, 전북에서는 농업인 부담금 중 5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원봉사 형태의 행복나눔이를 파견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비의 70%는 국가가, 30%는 농협에

서 지원한다. 가구당 연간 12회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500가구, 9억9,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고령·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유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한 맞춤형 농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요건 등 세부내용은 이용자가 거주지에 소재한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하이트진로홀딩스, '7년간 12억원' 장학사업 올해도 이어가

하이트진로홀딩스(대표 김인규)는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요식업 종사자 자녀 대상의 장학사업을 올해는 후·폐업 자영업자의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고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상생경영 및 사회환원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영세 요

식업 종사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해왔다. 2015년부터 7년간 800여명의 장학생에 12억여원을 후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폐업 자영업자에 도움을 주고자 대상을 확대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또한 코로나 19 등으로 장학증서 수

여식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이 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기면 선물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하이트진로홀딩스 김인규 대표는 “당사의 작은 도움이 학생들의 미래를 크게 밝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인재육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북도,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 지원

전북도가 도내 SW·IT 기업의 고성 장 도약을 위한 2021년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 SW·IT기업(경력 1년) 이상이며, 자유공모제 과제와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최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chain)을 중점으로 한 혁신기술 품목지정형 과제로 응모 가능하다.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문가 평가심의를 통해 4월초 선정기업과 협약 후, 자유공모형은 과제당 1억원, 혁신기술 품목지정형은 과제당 1억5천만 원 등 총 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경제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SW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호성 기자